

선교사님 소식

기도의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 가족 주님의 평안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해영 선생님은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고, 아들 주하는 한국 학교와 한국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터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해영 선생님은 지난 달 암이 전이된 천골(척추 끝) 부분에 통증이 심하여 급히 MRI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작년 9월 2.9cm였던 암이 2cm로 줄었고, 줄어든 암으로 인해 뼈 부분이 연약하여 통증이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동안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헌신,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 주신 주님을 통해 조금씩 회복되는 증거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암이 떠날 수 있지만, 아내에게 오랜 시간의 치료를 통해 저희 가정에 주시는 주님의 뜻을 알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해영 선생님은 긴 시간 치료를 해야 하기에, 돌아가고 싶은 터키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이해영 선생님의 치료에 집중하여 빨리 회복하여 터키로 돌아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급하게 한국으로 나와, 빠른 시간 안에 터키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코로나와 아내의 치료로 1년 7개월의 시간이 지나 갔습니다.

저는 2주 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다음 사역을 기대하며 터키의 사역과 집을 정리하기 위해 8월 10일 출발, 3주 일정으로 터키를 방문합니다. 오랜 시간 머물며 있길 원하지만, 제가 없는 동안 이해영 선생님의 병원 스케줄이 중단되는 상황이라 최대한 짧은 일정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9월 이후 한국에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키로 돌아가기 전 까지 한국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처, 생활 환경, 아들 교육, 높은 물가, 병원 치료 등 많은 부분들이 선교지에 있던 것과 다르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키 최○○, 이○○ 선교사-

티벳 선교 소식

코로나로 한국에 머문 시간이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희는 이제 백신1차를 맞고(아내는 아직 못맞았습니다. 백신 예약이 안되어서...) 다시 선교지로 나갈 길을 열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 비자를 도와주던 사업가가 코로나로 천국에 가면서 비자의 길이 막혔습니다. 다행히 또 다른 평신도께서 비자를 돕겠다고 얘기는 해준 상황인데 장기비자가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코로나상황에 선교지에 3개월체류하고 왔다가 하는것이 효과적이지 않아서 중국내 티벳지역이 아닌 서티벳(네팔, 인도)쪽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 지역도 코로나로 입국이 힘든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지난 겨울과 여름방학기간동안 줌으로 티벳 어린이들 겨울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티벳형제 자매들과 기도하며 온라인사역을 이어가고 있는중입니다. 그 사이 결혼하여 아기를 출산한(저바가정, 런칭가정)친구도 있고 결혼한 형제들(두덩형제, 축송형제)도 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가족 눈치를 보느라 믿음을 숨기고 사는 그런 형편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족사역자부부와 함께 중국어로 말씀연구와 설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것 같은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고 저희들 개인적인 언어와 말씀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감사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 여름성경학교
시에자가정의 아이들(두덩, 자시)과 여름성경학교를 1주간 진행했습니다. 중국 티벳지역의 열악한 전기상황으로 인해 정전이 되면 연락이 끊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여름이면 온종일 일을 합니다. 겨울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 여름에 일이 몰려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 점심을 준비해주는 시간때만 집에 오기 때문에(엄마 핸드폰을 이용) 그 시간을 맞춰 성경학교를 위챗으로 가졌습니다. 간단한 영어공부를 하고 매일 성경애니메이션 스토리를 3편씩 보고 느낌을 얘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특히 성경동화에 큰 재미를 느꼈고 모세이야기, 다윗이야기, 예수님십자가 이야기를 엄마앞에서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식사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하는 성경얘기를 들으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씨다 지역은 티벳지역에서 가장 큰 불교학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성경이야기가 들려지는 것 만으로도 기적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부모들은 아이들이 해준 십자가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을 통해 들려진 복음이 부모뿐 아니라 친구, 친척들에게도 복된 소식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 도지 뮤직비디오
음악을 공부하는 도지는 방학을 이용해 대도시에 나와서 저녁마다 술집에서 가수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는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엄마의 은혜"라는 가사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엄마의 사랑은 어린나를 길러준 자비입니다. 엄마는 나의 우상입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 곡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개사를 해서 다시 도지에게 불러보라고 할려고 합니다. 만약 이 가사의 곡이 불러진다면 중국령 티벳의 첫 번째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에서 나를 건져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3. 두덩가정
결혼하여 고향에 집을 지은 두덩형제는 집을 완공했습니다. 방1칸을 티벳선교를 위한 공간으로 저희에게 내어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대도시에 가서 따공(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혹은 시간이 될 때마다 위챗으로 연결하여 기도하고 아내에게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아버지지역(암도티벳)의 선교기지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제목>
1. 저희들이 미전도종족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장기비자가 속히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2. 축송의 가정을 통해 온가족과 가문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3. 도지의 문화선교를 통해 티벳찬양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4. 어린이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각 가정의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티벳 김○○, 한○○ 선교사-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1년 9월 12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1명 자체파송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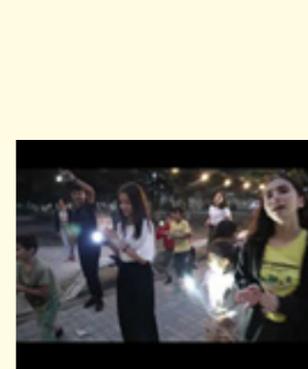
아르메니아 이야기

전쟁을 겪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코앞에서 직면하다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치 감기보다 못하게 취급을 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코비드에 대한 규제가 없어진지 오래됐습니다. 교회 주일예배도 올해 초부터는 종전처럼 대면예배로 다시 모이기 시작해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까지 매주일 4-5백명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코비드 규제에 대한 뉴스를 듣다보면 코비드에 대한 반응도 나라와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적용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여름은 행사로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비드때문에 취소할 수 밖에 없었던 여러행사들, 프레스 디아스, 장애인 러브캠프, 아이들 여름캠프 그리고 시골마을 순회전도집회, 터키와 이란 아웃리치등 몸살이 날 정도로 바쁜 일정을 주님의 은혜가운데 단 한사람도 다치거나 아픈 사람없이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한편으로 코비드에게 감사한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심령이 코비드와 전쟁으로 인해 더욱 갈급한 심령이 되서 무슨 행사를 하던지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고, 둘째, 지난해 행사들을 취소하면서 모아두었던 재정들이 있어서 올 해 여름 외부의 특별재정지원없이 이 모든 행사들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안에서는 하나도 버릴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다시한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아르타샷 교회의 하직 사파란 목사님 부부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아르메니아 선교에서는 가장 귀한 동역자인데 올해 미국으로 초청을 할 수 있게 돼서 넘 감사합니다.

아래 사진은 올 여름 행사, 아웃리치등 사진입니다. Youtube에서 Ararat Mission 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영상을 보실수 있습니다



<기도제목>

1. 터키와 이란을 향한 장기 선교사 5유닛 파송이 올해 안에 잘 진행,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 아가락 미션센터(이란국경)와 바투미 미션센터(터키국경)이 은혜롭게 잘 준비, 운영될 수 있도록...
3. 장기 선교사 파송과 훈련에 필요한 무슬림 선교재정이 잘 채워 질수 있도록...
4. 아라랏 미션에서 돌보고있는 150명의 불우,고아 아동들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성장할수 있도록...
5. 여름방학후 9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 Back to School 준비 지원에 필요한 재정 (\$4,000)이 채워질 수 있도록...
6. 필드트립/ 미션아웃리치에 필요한 중고 미니밴을 구입(\$15,000)할 수 있도록...
7.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었던 장애인 고아원 사역이 조만간 재개 될 수 있도록.
8. 전쟁후 불안한 정세가 조속히 안정되고 피난민들 구제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9. 선교사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아르메니아 백승환, 올라 선교사-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주님 선교사가 아프카니스탄 카불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선교사님이 카불을 탈출하여 무사히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모스크바 신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인 28살에 아프카니스탄으로 파송이되었습니다. 우리사역팀은 아프카니스탄 북부인 쿤드즈에서 수 만명에게 복음을 전하던 중 이 소식이 알카에다에게 전해졌고, 2004년 12월 새벽기도 하던중 7명의 알카에다의 습격을 받아 새벽 기도하던 6 명의 사역자들이 모두 죽게 되었지만, 주님이 천사를 보내 주어 사역자들을 향해 쏜 총을 천사가 막아 주어 사역자들은 모두 무사했고, 알카에다가 쏜 총에 오히려 테러하러 온 알카에다 대원 한명이 자신들이 발사한 총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알카에다의 테러 이야기는 조금 길니다) 알카에다의 테러 이후에 저는 제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지금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아프카니스탄을 철수 하자고 하였습니다. 모두 침묵을 하던 중에 주님이 자신의 생각을 말 하셨습니다. "목사님, 아프카니스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복음을 못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마저 이곳을 철수 한다면, 누가 이 아프카니스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죽는 것보다 복음을 못 전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더 두렵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주님은 그 후에 카불로 사역지를 옮기고, 그동안 약 오백 여명의 젊은이들에게 재봉과 컴퓨터, 영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양육 하였습니다. 제보에이번 아프카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넘어간 후에

도 계속해서 카불에서의 사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보에게 아직 해야 할 사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카불에서 나오지 못 하고 있는 크고 과 현지인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예루살렘을 향한 서진이 계속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0827

건강하시며 평안하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활도 움츠러 들고 참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환경적으로 여러가지로 힘이 드는 상황이지만, 성령님은 변함없이 성령님이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의 성도들은 성령님이 일 하실수 있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인 서쪽을 향한 전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 들고 중동을 향해 나갈 사역자들도 잘 훈련이 되어가고 있고 이땅의 수많은 영혼들도 추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년의 결실인 침례에 98명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천국이 조금씩 넓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 하게 될겁니다. 더욱 힘써 주님 오실길을 준비하며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산골속의 선교사,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여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두메산골에서드립니다. / 0903

<기도제목>

- 1,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 2, 현지인 성도들과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 3, 사역하고 있는 사무실의 안전을 위해서
- 4, 아프카니스탄이 탈레반으로부터 지켜지도록

-타직스탄 최○○ 선교사-

네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하시는 사역 위에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돌아오는 10 월 6일, 네팔 서쪽 덩거리에 들어가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선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서쪽 덩거리는 인도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무사히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매우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사역에도 어려움은 있지만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기도제목>

1. 새롭게 학교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코로나에 상관없이 학교가 운영될수 있도록
2. 학교 자립을 위한 양계장 만들수 있는 땅을 빌릴수 있도록
3. 학교 기숙사 건물을 세울수 있도록
4. 바나나 농장이 다시 시작되어 농업 비자를 받을수 있도록
5.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6. 아내 ○○○ 선교사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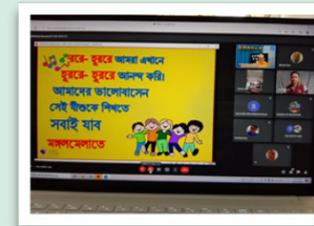
-네팔 김○○ 오○○ 선교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엡 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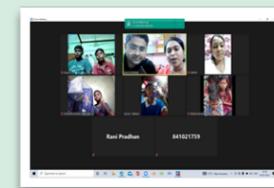
인도 현지의 코로나의 상황은 13억명이상 인구의 67.6% 가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검사 결과 발표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경우 제3차 펜데믹이 곧 다가 올 것 이라고 긴장하고 있으나 거리에는 코로나 펜데믹이 다 끝난 것처럼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 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인도 최대의 힌두 축제가 시작되면 지난 2차 페데믹 처럼 확진자의 숫자가 많아져서 다시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염려 하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기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욱더 나빠 지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 속히 회복 되고 지난날 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사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줌 미팅으로 시청각 교재로 찬양과 공과를 온라인상에서 가르치면서 또한 사역자들과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백신을 접종 하다. 사역이 원활하고 안전하도록 백신접종을 원하는 사역자들에게 백신을 접종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접종하는 백신은 무료로 접종하지만 언제 접종 순서가 돌아올지 몰라서 일반 개인 병원에서 돈을 지불 하면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코로나 펜데믹 속에도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사역과 전도 사역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지역 형편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는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여러 번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줌으로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파 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코로나 펜데믹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저희 사역자들과 저희들이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10월 이후의 제3차 코로나 펜데믹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10월 힌두 축제 때에 더욱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환경에 굴복 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도 정○○ 전○○ 선교사-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책장암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몸속의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네팔 이예신 선교사- 선교사님께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이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첼라빈스크 김봉년 선교사- 계속해서 호르몬 치료 결과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4.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 이해영 선교사님은 척추끝 부분 통증이 심하여 MRI 검사 결과 줄어든 암으로 인해 뼈부분이 연약하여 통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중국 박○○- 심장 스텐스 수술 후 많이 회복되었으며 한번에 수술이 더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회복과 남은 수술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7. 사할린 김성민- 사모님인 김지경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혈압이 불안정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8. 러시아 은성식 김경희 선교사-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심장과 폐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9. 파나마 김재한 선교사 - 전립선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진단이 나와서 9월 16일 수술 예정 입니다. 주님의 치유와 평강의 손길을 기도 부탁드립니다.